



현대위아, 코로나 의료진 위해 응원물품 전달
현대위아는 23일 코로나19 의료진에 1400만원 상당 응원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선물과 성금은 경기도 의왕과 평택, 안산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서산시 등 사업장이 있는 지역 보건소에 전달됐다. 현대위아 임직원들이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위아



신한카드-LG유플러스와 '디지털 도서관' 개관
신한카드는 서울시, LG유플러스와 함께 505번째이자 디지털 도서관 1호인 '신한카드 아담인 도서관'을 개관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이번 개관식에 (왼쪽부터) 박두준 아이들과미래재단 상임이사, 황인선 서울혁신파크 센터장, 정선에 서울시 혁신기획관 국장, 문동권 신한카드 경영기획그룹장, 정영훈 LG유플러스 금융영업담당 등이 참석했다. /신한카드



도요타, 주말농부 가족들과 김장김치 500kg 기부
한국도요타자동차가 올해에도 김치를 나눴다. 도요타는 노숙인 무료 급식시설 안나의집에 김치 500kg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달한 김치는 주말농부 가족들과 함께 담근 것이다. 타케무라 노부유키 한국도요타자동차 사장(왼쪽)과 오현숙 안나의 집 사무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요타코리아



교원그룹, 사회공헌 활동 '서울시장 표창' 수상
교원그룹이 '2020 불우이웃돕기 후원자 및 유공자'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동 복지 증진 및 사회 복지 구현을 위해 실천한 사회공헌 활동 공로를 인정받으면서다. 전국 사회복지시설 대상 전직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후원, 교육기업 최초 바른인성 캠페인, 다문화·저소득층 아동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사진은 교원그룹 임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 /교원그룹



한림대성심병원, 안양시새마을회 김장나누기 후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지난 13일 안양시새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진행된 안양시새마을회-안양시새마을부녀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여했다. 김기현 행정부원장, 심정은 간호부장, 이승대 총무팀장은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석해 마음을 담은 응원 메시지와 후원금을 전달했다. 함께 담근 3000포기 김장 김치는 안양 시내 어려운 이웃과 홀로 계신 어르신,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다. /한림대성심병원

고객관리가 최고의 경쟁력



이상현
창업 칼럼

얼마 전 한 콘퍼런스에서 창업에 성공한 CEO들에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가장 힘이 되어준 습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膺亡齒寒(승망치한)”이라 답한 CEO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뜻의 이 한자성어엔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중시하는 성공한 CEO들의 삶의 철학이 깃들여있다. 예나 지금이나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바로 사람이 재산이라는 사실이다. 창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불특정고객이 곧 수익성의 근간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창업은 모두 서비스업이라 한다. 소위 2:8의 법칙으로 대변되는 중성고객들은 그만큼 표적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충성도가 사업의 로열티를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고객은 왕이다.’ 몇 해 전까지의 구호였다. 하지만 지금은 ‘고객은 귀신

다’라고들 한다. 그만큼 고객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고객의 소비성향은 변화한다. 늘 같은 제품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기란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나 최근과 같은 안심, 안전, 건강, 환경, 복고, 가격등의 키워드로 구매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환경과 시기, 그리고 판매조건에 따라 구매력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현상은 비대면을 기반 사업의 영역을 성장시키고 있다. 모든 업종에서 온라인과 배달을 혼용한 형태의 사업으로의 전환과 탑재는 기본이다. 하지만 소비는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아무리 코로나로 안전에 대한 강박관념이 지속하여도 소비를 안 할 수는 없다는 명제는 기본이다. 다만 어떻게 소비구조를 전환하느냐가 사업성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불황기 영업전략 중 최선이자 최고의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단골에게 충성하라’ 라고 할 수 있다. 신규고객을

창출하는 노동력대비 투자비용이 단골에게 추가 매출을 발생하는데 드는 투자비용을 훨씬 웃돈다. 따라서 최고의 대안은 선택과 집중 중에서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단골고객을 상대로 하는 세심한 인맥관리가 나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최대한의 경쟁력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胃氣(위기)라고들 한다. 위기(crisis)는 ‘현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한다’라는 뜻이 있다. 또한 위기는 危險(위험)과 幾回(기회)라는 함축된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위험 속에서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활용해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창업자는 잘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회를 잡아야 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선 고객 인맥관리가 선행지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창업은 전쟁이고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학 박사)

LG U+, 협력사들과 독거노인에 식료품 지원

사랑의 꾸러미 나눔 시즌7 행사
식료품 꾸러미 600가구에 전달

LG유플러스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협력회사 협의체인 U+동반성장보드와 함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꾸러미 나눔 시즌7’ 행사를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LG유플러스 및 U+동반성장보드 회원사인 협력사 소속 임직원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참가해 어르신들을 위해 쌀을 비롯한 식료품을 담은 ‘사랑의 꾸러미’를 제작했다. 사랑의 꾸러미는 보건복지부 위탁법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 6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해의 절반 수준 인원만 참가하여 진행됐는데, U+동반성장보드 의장사인 유비쿼스, 파인원커뮤니케이션



LG유플러스가 연말 연시를 앞두고 협력회사 협의체인 U+동반성장보드와 함께 ‘사랑의 꾸러미 나눔 시즌7’ 행사를 펼쳤다. /LG유플러스

선즈, 모임스톤, 명신정보통신의 공동 기부로 기금이 증가함에 따라 후원 대상 어르신은 지난해 대비 50가구 증가했다. U+동반성장보드는 LG유플러스의 26개 협력회사로 구성된 동반성장 협의체로, 동반성장 관련 제도 및 시행내역을 공유하며 LG유플러스와 협력사

간 및 협력사들간의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동반성장보드 의장사인 유비쿼스 이경길 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인사

-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한국, 생활체육뉴스, 일간스포츠한국방송 논설위원 이규운
-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장 이영열
- ◆농촌진흥청 △과장급 △국외농업기술과장 장안철
- ◆미래에셋대우 △신임 △인프라투자본부장 반상우 △서울1지역본부장 송관훈 △VIP솔루션본부장 류희석
- ◆대신금융그룹 △대신증권 △상무 신규선임 △IPO담당 나유석 △WV추진본부장 신재범 △재경1WM본부장 강준규 △전략지원본부장 강윤기 △부사장 승진 △WV사업단장 송혁
- △전무 승진 △서부WM본부장 정영규 △전무 전보 △경영기획본부장 진승욱 △대외협력담당 조경순 △상무 전보 △고객자산본부장 겸 홍보 부부장 김호중 △부부장 승진 △정보보호부

- 장(이사대우) 박현식 △대신에프앤아이 △상무 전보 △경영기획본부장 이성근 △대신저축은행 △상무 신규선임 △스마트금융본부장 현준호 △본부장 승진 △이사대우 영업본부장 장석철 △대신자산운용 △상무 신규선임 △대안투자그룹장 김건홍 △대신자산신탁 △상무 신규선임 △경영지원부문장 오홍진
- ◆신아일보 △광주광역시 취재본부장 김상진

부음

- ▲김두수씨 별세, 김동욱(KBS 대구방송총국 촬영기자)씨 부친상 = 23일 오전 9시,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VIP실 203호, 발인 25일 오전, 052-272-1111
- ▲김신환씨 별세, 안성현(정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씨 장인상 = 23일 오전 5시, 청주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국화1호실, 발인 25일 오전

- 9시, 043-298-9200
- ▲조문영씨 별세, 박재희씨 남편상, 조옥란-조성기(동아일보 출판관리팀장)-조금란-조영기(삼원특수지 상품유통팀 과장)씨 부친상, 손용주-최진(산들처럼 대표)씨 장인상, 오소연-정은선씨 시부상 = 23일 오전 5시,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02-440-8921
- ▲이태원씨 별세, 이상숙(두원공과대학 기획처)-이상석(대구MBC 보도국 부국장)씨 부친상 = 22일 오후 9시 40분,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25일 오전, 053-620-4647
- ▲장선옥씨 별세, 백용만(아이앤아이건설)-춘희(전 초당중학교 교사)-용삼(전 대림여중 교사)씨 모친상, 장용동(아시아투데이 대기자, 전 헤럴드경제 편집국장)씨 빙모상, 백승진(시화병원 신경외과 과장)씨 조모상 = 23일 오전 2시, 수원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1호, 발인 11월 25일 오전 7시, 031-219-4581